

海外業界動向

미국, 워크스테이션 업계, 아시아 시장 공략 강화

미국의 워크스테이션 업계 전문가들은 앞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워크스테이션 수요가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의 수요를 능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예상은 인도, 중국 등 거대국들의 존재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신흥 공업 국가들의 경제성장 잠재력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미 대규모 워크스테이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일본이 불황에서 벗어나면 일본에서의 워크스테이션 수요 역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업체 Dataquest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은 21억달러 규모의 워크스테이션 시장을 형성하는데, 그중 27.2%에 해당하는 5억 8,620만 달러를 Sun Microsystems가 차지했으며, Hewlett-Packard(HP)가 3억 7,350만 달러, IBM이 1억 4,600만 달러의 매출을 일본 시장에서 기록했다.

Sun이 지난해 일본 시장에서 기록한 매출액은 이 회사 총 매출액의 15%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Sun은 일본의 Fujitsu와 협력을 강화, 상호 특허 공유협정을 체결했으며, 상호 호환성을 갖춘 SPARC 프로세서와 UNIX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할 것에 합의했다.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워크스테이션 시장은 1993년 현재 3억 5,100만 달러에 불과하나, 이 지역의 정치적 안정성, 경제성장 잠재력, 교육수준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큰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Sun

을 비롯한 미국 회사들은 이 지역에 지사를 확대 설치하는 등 입지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메인 프레임이 거의 전무한 상태 이기 때문에 은행·투자회사 등이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을 처음부터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경우, 컴퓨터 시장 전체 규모가 아직까지는 18억 달러에 불과하나, 1997년까지는 연 13%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33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중국 시장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있는 워크스테이션 업체는 Integraph로, 이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판매 전략과 우수한アフ터서비스 덕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Intergraph 워크스테이션의 주 판매처는 CAD(Computer Aided Design)업계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범용 워크스테이션 시장에서의 경쟁은 Sun, HP, IBM, DEC 등 미국의 주요 워크스테이션 업체들 간에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Dataquest의 집계에 따르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시장에서 Sun은 지난해 8,57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고, HP는 3,600만 달러, IBM은 9,860만 달러, DEC는 4,97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한편 현대/Axil은 지난해 아시아 시장에서 51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차세대 PC : 사용 편의 향상, DSP채택 증가 예상

지난 2년 동안 PC 업계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기술 혁신이 아니라 제품 가격의 하락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2년 동안에는 가격 하락현상이 지속됨과 더불어, PC의 기능도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는 PC 산업에 혁신적인 신기술이 도입되기 보다는 사용자들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발전이 작은 부분들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PC의 성능 향상은 무엇보다도 마이크로프로세서 기술의 발전이 주도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반도체 업계의 기술 발전 추세를 살펴보면,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내장되는 회로의 수는 평균 18개월마다 두배씩 늘어났다.

이러한 추세는 Intel이 내년 "P6" 프로세서를 발표함으로써 지속될 전망이다. 나아가, Digital Equipment Corp.(DEC)의 "Alpha" 프로세서와 IBM, Apple Computer, Motorola가 공동 개발한 "Power PC" 프로세서 또한 PC 업계에서 입지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PC 사용자 입장에서는 제품 선택의 폭도 더욱 넓어질 것이다.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더불어, DSP(Digital Signal Processor)가 PC에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DSP는 음향을 처리하거나, 모뎀을 가동시키거나, 하드 디스크를 작동 시키는 것과 같은 PC의 특정한 기능을 담당하는데, 이러한 기능은 DSP에 수록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부여된다.

DSP업계는 프로그램 기능을 향상시키고 프로그래밍 방식을 표준화 시킴으로써 DSP의 유용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DSP의 기능이 향상되면서 앞으로는 모뎀, 사운드 카드, 비디오카드를 비롯한 PC용 악세서리 기능을 하나의 제품에 통합 시키는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궁극적으로는 PC 주기판에 이러한 기능들이 포함될 것이다.

PC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도 더욱 다양해 지고 있다.

IBM이 개발한 OS/2 운영 시스템에는 스프레드시트, 일정 계획, 데이터베이스 등의 기능이 이미 포함돼 있다.

Microsoft의 차세대 Windows 소프트웨어 "Chicago" 또한 전자우편, 팩스 등의 기능을 포함할 예정이다.

운영시스템 뿐 아니라 응용 프로그램들의 기능도 다양해 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별도의 제품으로 판매되던 철자법 교정 소프트웨어가 이제는 워드프로세서에 포함되는 것이 보통이다.

현재 PC 사용자가 느끼는 큰 불편은 악세서리나 주변기기를 추가할 때 제품간 호환성이 결여돼 있거나, 복잡한 환경설정 절차를 거친 후에야 이들을 작동시킬 수 있다는 점인데, 이러한 문제는 "Plug and Play" "Play at Will"을 비롯한 표준이 정착 되면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PC의 가격 하락 또한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오는 1996년에는 Intel의 Pentium이나 P6 또는 제2세대 Power PC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32MB의 RAM과 1GB 이상의 하드 디스크를 갖춘 PC가 1천~3천달러에 시판될 전망이다.

또한 모뎀의 속도는 초당 28,800bits로 빨라지고 17인치 모니터로 일반화 될 것으로 보인다.

ACER 미국법인, 금년에 흑자전환 전망

대만 최대의 PC업체 Acer Inc의 미국내 현지법인이 회사 사상 처음으로 금년에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Acer의 Stan Shih 회장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중 Acer의 미국내 매출액은 약 3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금년도 전기간 동안에는 총 7억 3,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Acer의 금년도 전세계 매출액은 28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순익은 1억 7,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cer에 따르면, 대만의 Texas Instruments Inc와 합작 생산하고 있는 DRAM 칩의 매출이 급증하고 있고, 탁상용 PC 매출은 금년에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노트북 PC의 금년도 매출액은 작년의 두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Acer의 Shih 회장은 미국 시장에서의 마케팅을 강화시키고 PC 조립공장을 대만으로부터 미국을 비롯한 해외로 이전 함으로써 생산 비용을 절감시킨 것이 미국내 법인의 경영실적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ELL, 2/4분기 매출액 13% 증가

텍사스주 Austin에 있는 미국 6위 규모의 PC 공급업체 Dell Computer Corporation은 지난 7월 31일 마감된 2/4분 회계 분기중 매출 7억 9,150만 달러, 순익 2,86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동안 Dell은 매출 7억 60만 달러, 손실 7,570만 달러를 기록 했었다.

금년 2/4 회계분기중 Dell의 매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 했는데, 이는 주로 노트북 PC의 매출이 두배 이상 늘어난데 힘입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Dell에 따르면, 지난 회계분기중 전체 매출액의 50%를 노트북 PC가 차지했다.

또한 Pentium 기종 탁상용 PC의 매출도 지난 회계분기중 급증, Dell 전체 매출액의 24%를 Pentium 기종이 차지했다.

한편, PC 업계의 지속적인 가격인하 경쟁 때문에 Dell의 판매 이윤율은 지난 회계분기중 3.6%가 하락, 21.4%의 총 판매 이윤율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년도 상반기 동안 Dell은 총매출

15억 6,000만 달러, 순익 4,570만 달러를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PC업계, 수출 노력 강화

중국의 PC 업계가 제품 수출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PC 업체들은 아직까지 생산량도 적고 기술수준도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중국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는 IBM, AST Research, Compaq 등 주요 PC 업체들과의 제휴를 강화하고 있으며, Pentium 프로세서 기종 고성능 PC의 생산에도 착수하고 있다.

업계 분석가들에 따르면, 중국의 PC업계는 낙후된 경영방식, 생산용량 부족, 신기술 습득의 어려움 등의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 생산량을 증가시키지 못하고 있다.

Hong Kong의 International Data Corp. China/Hong Kong Ltd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PC 생산량은 9만대에 그쳤으며, 금년에도 11만대를 생산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중국이 주요 PC 공급국으로 성장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중국의 PC 업체들은 미국의 중 PC 업체들과의 OEM 공급계약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IBM, PC가격 27%까지 인하

IBM은 칼라 노트북 PC "Think Pad 750C"와 이미 생산을 중단시킨 가정용 기종 "PS/1"을 제외한 대부분의 PC 가격을 최대 27%까지 인하 한다고 발표했다.

IBM의 이번 조치는 경쟁사 Compaq Computer가 지난주 최대 22%에 이르는 가격인하를 발표한 데 대응하는 것으로, IBM의 평균 가격 인하율은 21%에 해당, IBM 제품의 가격은 비슷한 사양의 Compaq 제품보다 5%

정도 낮아 지도록 조정됐다.

업계 분석가들은 Compaq가 IBM의 가격 인하에 대응한 추가 가격인하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IBM도 다시 가격을 인하시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에 대해 IBM은 자사 제품과 경쟁 제품간에 가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PC 업계의 가격인하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나타냈다.

한편 PC 업계의 가격인하 경쟁이 다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은 다른 업체들보다는 IBM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SUN, 워크스테이션에 PCMCIA 인터페이스 도입

SUN Microsystems Computer Corp. (SMCC)는 UNIX용 워크스테이션 업체로는 최초로 PCMCIA 인터페이스를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SMCC는 자사의 Sparcstation에 정착된 "SBus" 슬롯에 설치할 수 있는 PCMCIA 아답터를 295달러에 시판하기 시작했는데, 이 아답터에는 두장의 PCMCIA 카드를 추가할 수 있다. 아울러 SMCC는 PCMCIA 아답터에 사용된 ASIC "STP 4020"을 Sparc Texhnlogy Business부문을 통해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 칩은 5,000개 기준 52.25 달러에 판매되며, 드라이버 개발에 사용되는 Development Kit는 Sun의 Catalyst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로 제공된다.

AT & T, 경량 노트북 PC 개발

오하이오주 Dayton에 있는 AT&T 산하 Golbal Information Solutions는 같은 사양의 경쟁 제품보다 무게가 2파운드 더 가벼운

노트북 PC 신제품 세가지를 개발, 8월말부터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이들 세 모델은 Intel의 50MHz i486SX2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장착하고 있으며, 200-340MB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와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갖추고 있는데, 제품 무게는 4.7파운드에 불과하다.

AT&T에 따르면, 흑백 스크린 모델은 1,699스크린과 340MB 하드 디스크를 갖춘 모델은 2,599달러에 판매될 예정이다.

COMPAQ, PC가격 20%인하 예정

2년전 PC업계의 가격인하 전쟁을 촉발시켰던 Compaq Computer는 금년 4/4분기에도 자사 전제품의 가격을 평균 20% 인하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Compaq는 멀티미디어 "Presario" 및 "ProLiant" 서버 새 모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Compaq가 계획중인 신제품에서는 디스크 드라이브와 메모리 용량이 증가하고, CD-ROM드라이브의 채용이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Compaq는 아직까지 각격인하 계획을 시인하지 않고 있으나, 컴퓨터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평균 20%에서 최대 30%에 이르는 가격인하 조치를 예상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90MHz Pinitum Deskpro 신제품에는 16 MB의 RAM, 535MB 하드디스크, 2배속 CD-ROM드라이브, PCI로컬 버스, 32-bit Ethernet 및 고속 SCSI-2 컨트롤러가 포함될 예정이며, 이러한 시스템의 시판 가격은 4,400달러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유사한 사양을 갖춘 66MHz Pentium Deskpro XL의 가격은 현재 4,400달러에서 3,600 달러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폴 아시아국가 최초로 모토롤라의 "FLEX 호출 시스템" 도입

모토롤라 호출기 그룹사는 최근 싱가포르 통신이 FLEX호출 하부망 시스템 확장(FLEX capable Paging Infrastructure System Expansion)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2대의 MPS2000 터미널과 함께 200 뉴클러스(Nuclues) 트랜스미터, C-Net 콘트롤러 등 기타 관련 기구들을 사용한다.

또한 모토롤라의 세계 호출하부망 디비전(Global Paging Infrastructure Division GPID)과 배급사 Mecomb Singapore Limited로 부터 장비를 구입하는 것 외에 싱가포르 통신은 이 시스템을 설치하고 위임하기 위해 모토롤라와 메콤사의 서비스 및 설치 그룹의 자문을 구할 예정이다.

700만불(US \$)이 넘는 이 시스템을 구입함에 따라 싱가포르 통신은 4대의 모토롤라 MPS2000 터미널을 소유하게 되었다.

싱가폴 통신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호출기 사용 인구에게 보다 양질의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사의 확장 계획의 일환으로 FLEX 시스템을 새로이 구입하게 되었다.

가입자가 60만을 넘는 싱가폴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출기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싱가폴 인구중 22%가 호출기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북미에서는 단 10%만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1%만이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대다수 싱가폴 통신 고객은 숫자 통신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소수는 문자와 숫자를 결합 호출 서비스를 애용하고 있다.

새로운 FLEX 시스템은 독특한 에러 수정 연산방식(algorithm)으로 더욱 질 좋은 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FLEX 시스템은 각 전파 채널의 가입자 수용 능력을 증가시켜 보다 효율적으로 하부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요 호출기 공급업체가 이미 라이선스를 받아 FLEX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모토로라 멀티미디어 참고용 스펙, DPS, RMI 지원

Austin, TX-June 27, 1994 모토로라는 주요한 통신기능과 멀티미디어 사운드 기능을 하나의 저가형 ISA버스 하드웨어 플랫폼에 결합시키는 멀티미디어 참고용 디자인 스펙을 발표했다.

참고용 디자인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DSP 자원관리자 인터페이스(Resource Manager Interface, RMI) 하에서 스펙트론 마이크로시스템의 DSP 운영시스템, SPOX에서 동작하는 것으로 모토로라 DSP56002에 근본을 둔것이다.

이와관련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DSP RMI스펙을 구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모토로라가 발표한 참조용 디자인은 시스템 제조업체로 하여금 많은 개발 노력에 투자함 없이 컴퓨터 기술, 음성 그리고 오디오를 결합시킨 제품을 만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

참고용 디자인은 DSP56002에 근본을 둔 완전한 멀티미디어와 통신보조시스템을 규정하고 있으며 광대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요소를 포함한다.

이것은 시스템버스에 대한 통신을 전화선, 마이크, 스피커, CD-ROM 드라이브 그리고 게임 포트 이외에도 여러가지의 오디오 장치 등과의 인터페이스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프로그램 가능한 DSP로 디자인 되어 동작되어지므로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통해 쉽게 Upgrade시킬 수 있다.

가정용 VTR 수입, 최초로 100만대 돌파

금년의 가정용 VTR 수입대수는, 최초로

100만대를 돌파해 110만대 전후로 까지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6월까지의 정요 VTR 수입대수(대장성 통계)는 482,000대로 전년동기대비 73.1% 증가한 대폭적인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1~2년간 VTR메이커 각사가 엔고를 배경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의 생산이전을 가속해 왔는데, 이러한 지역으로 부터의 수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년의 100만대 수입대수중, 일본 전자기공업협회(EIAJ)의 국내 출하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일본계 기업 각사와 한국계 기업의 쉐어는 60%에 달하고 있는데, 수입 VTR의 증대는 VTR 전반의 단가 하락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정용 VTR 수입

	대 수	전년대비
'89	472,797	128.9%
'90	264,401	55.9%
'91	316,880	119.8%
'92	487,427	153.8%
'93	680,270	139.6%
'94(추정)	1,150,000	170.0%

VTR의 수입은 '90년에 전년의 472,000대에서 44%나 감소하였으나, 그후, 증가경향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최근 1~2년은 엔고를 배경으로 수입이 가속화 되고 있다.

'91년도에는 전년대비 119.8% 증가한 316,000대, '92년도에는 153.8% 증가한 487,000대, '93년도에는 139,200대로 확대를 계속하고 있다.

금년에 들어, 1~3월은 약 10%대의 신장에 머물렀으나, 4월에 전년동기대비 144.1% 증가한 5만4,000대, 5월에 동 255.0% 증가한 14만대, 6월에 동 283.0% 증가한 13만대로, 급속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6월에는 말레이시아로 부터의 수입이 전년대비 577.7% 증가한 82,000대로 급격히

신장하였는데, 말레이시아에는 일본계 메이커의 VTR 생산거점이 집중해 있어 각사가 일제히 수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에는 마쓰시다 전기, 일본 빅터, 히다치, 소니, 샤프, 미쓰비시전기 등이 생산거점을 갖추고 있고 일본 빅터, 히다치, 미쓰비시전기, 샤프 등이 모노럴 VTR 일본시장에의 도입을 본격화 시키고 있으며, 금후에는 보급 타입의 하이파이 VTR의 수입도 증가할 전망이다.

금년 전반(1~6월)의 VTR 수입은 482,000대로 전년동기대비 171.3%의 대폭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국가는 말레이시아가 23만 4,000대(구성비 48.6%)로 거의 수입대수의 반수를 점하고 있다. 이어 한국의 13만 1,000대(동 27.3%), 태국의 8만 4,000대(동 17.6%) 등이다.

금년의 VTR 수입은 최초로 100만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현재의 성장률로 110만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IAJ가 발표한 VTR의 국내출하는, 전년의 448만대에 대해 금년에는 470만대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EIAJ 가맹회사가 수입하고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것은 VTR 수입 전체의 약 4%에 지나지 않는다.

즉, 100만대의 수입 VTR중 60만대는 EIAJ의 국내 출하통계에는 산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년의 실질적인 가정용 VTR(텔레비디오 제외)의 국내수요(출하)는 530만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 미국 모토롤라가 제창한 이리듬계획에 참가기로

인도는 모토롤라가 제창한 이리듬계획에 참가기로 하였다. 금융기관 등이 모여 콘서시업을 결성하고 3,2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이리듬은 저고도 궤도(LEO)를 이용한 66기의 위성을 쏘아올려 전세계에서 기존의 셀룰

리망과 호환성이 있는 무선 휴대전화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다.

총투자액은 34억 5,000만 달러로, 일본에서도 제2전전과 경세라가 출자하는 일본 이리듬이 동 프로젝트에 참가키로 되어 있다.

인도 기업중에서 이리듬에 출자하는 것은 제네랄 보험(GIC), 인도 산업개발은행(IDBI), 산업신용투자회사(ICICI) 등 11개의 국내 유력금융기관으로, 이들 기업은 공동으로 이리듬의 운영회사인 「이리듬·인디아」를 설립하였는데, 신회사의 이리듬에의 투자액은 3,200만 달러로, 이리듬 임원 회의에도 임원을 파견한다.

이리듬·인디아는 '98년까지 인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의 각국에서 휴대전화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인도가 이리듬계획에 참가하게 됨으로써, 세계 12개국 15개 기업이 이리듬계획에 출자하게 되는데, 인도의 참가에 대해 로버트킹 회장은 「인도는 무선서비스에서 커다란 시장이 전망되는 곳으로, 이리듬 계획에 많은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인도 시장에 대해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현재 인도 이외에 이리듬계획에 참가하고 있는 출자자는 BCE 모빌(캐나다), 이리듬·아프리카, 이리듬·안데스·카리브·베네수엘라, 이리듬·미들-이스트(사우디아라비아), 프루니체프·엔터프라이즈(러시아), 중국장성공업공사, 일본 이리듬, 페시픽·일렉트릭·와이어&케이블(PEWC 대만), 레이세온, 스프린트, 모토롤라, 록히드(이상,미국) STET(이탈리아) 태국·서트라이트 등이다.

미국의 애플사, 유럽의 초고속 무선 LAN 개발 프로젝트에 참가

미국의 애플 컴퓨터가 유럽의 초고속 무선 LAN의 개발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유럽기업을 지원하게 되었다. 동사의 참가는, 동 프로젝트

가 미국에서도 응용이 가능한지 어떤지를 확인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애플이 참가하는 것은 유럽위원회의 「에스프리」라 불리우는 R&D 프로젝트로 LAN과 관련된 「하이파 라이온」계획인데, 동사와 GEC 프레스·세미콘다타즈(GPC) ARM이라고 하는 영국의 반도체기업을 포함한 3개사는 초고속 무선 LAN 「하이파 LAN」의 하드와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맡게 되었다.

하이파 라이온은 2년간의 프로젝트로 EU의 자금원조를 받아, 주로 휴대 컴퓨터용의 고성능 무선 네트워킹의 개발에 주안을 두고 있으며, 개발의 주력은 저소비전력으로 극히 소형화된 마이크로파 통신시스템의 상용화를 가능하게 하는 최첨단 부품과 패키징 기술의 실현에 있다.

애플측에서는 유럽 프로젝트에의 참가에 대해, 「(당사는) 유럽의 무선 LAN에 조준을 맞추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ETSI(유럽전기통신표준화연구소)의 「RESIO」 기술그룹에서 논의되고 있는 하이파 LAN의 목적은 5.2GHz대의 이용을 개척하고 대기중에서 30Mbit/초의 성능을 확립하는 것이다.

하이파 라이온에서 애플은 통신프로토콜의 정의 확립을 담당하는 외에 시스템 제어기술의 개발에도 노력한다. 또한, GRS는 무선의 Hard 면에서의 솔루션을, 애플도 자본참여를 하고 있는 ARM은 매립형 마이크로 컨트롤러 기술을 하이파 라이온에 제공키로 되어 있다.

관계자 사이에서는 하이파 라이온의 2개의 개발 포인트가 북미 시장에서 응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유럽의 5GHz이상의 주파수 대에서의 이용은, FCC(미연방통신위원회)가 할당한 ISM(산업·과학·의료)용 주파수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점과, 하이파 라이온에 참가한 3개사가 미연방항공국(FAA)이 사용하고 있는 5.15/5.2GHz대를 무선 LAN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무선자

문위원회에 제안하였다고 하는 움직임 등에서 북미에서의 이용을 전망하고 있다.

NEC, 세계 최초로 차량탑재용 고휘도 그래픽, 칩인 그래스 형광표시 패널 개발

NEC는 고내압 드라이버 IC를 내장한 세계 최초의 차량탑재용 고휘도 그래픽·칩인 그래스 형광표시 패널 CF80 GX 16BA(4,000엔)을 개발, 판매를 개시하였다.

신제품은, 휘도 2700칸테라/평방미터, 표시용량 한자5자리 (JIS 제2수준)을 실현, 폰트수는 X방향 80열 Y방향 16행 (도트총수 1,280개)이다.

폰트 에리어는 X방향 40.4밀리, Y방향 10.0밀리로 당초 월 생산 1,000개로 스타트하여, 1년후에는 월 1만개를 생산할 예정이다.

동사에서는 「CF 80 GX 16BA」를 “그래픽형광표시 패널라인업”의 차량 탑재용으로써 위치를 부여하고, 금후에는 더욱 제품 구성에 충실을 기할 계획이다.

용도예로써는, 데이터 라디오 채널, 시트벨트 착용램프 등의 진단정보, 기타 다목적인 엔터테인먼트에의 대응을 들고 있다.

종래 기술에 의한 형광표시 패널에서는 단순히 도전 페스트로 그리드를 유리기판에 고정하는 내부구조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휘도화에 필요한 고 입사파워의 인가 및 표시의 고정세화에 크게 제약이 있었고 또 그래픽타입의 표시를 행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외부 리드를 필요로 하여 패널전체의 소형화는 곤란하였다.

이에 동사에서는 결정화 유리를 이용한 그리드의 고장력·고정도 자동 마운드시술, 형광체의 화인 패턴 인쇄기술 등의 생산기술 개발 및 자 스페이스사와 내환경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드라이버 IC의 내장화 (CIG)를 행하였는데, 특히 CIG는 동사만이 실용화 하고있는 기

술로, 패널 외부리드의 삭감에 의한 패널 전체의 소형화·모듈실장의 용이화 및 구동모듈의 간소화 등은 커다란 특징으로 하고 있다. 크기는 가로 81.0밀리, 세로 30.0밀리, 두께 7.0밀리이다.

마쓰시다, TV·비디오·비디오 카메라의 영상 3개 품목 와이드 전략

마쓰시다 전기는, 가을부터 연말에 걸쳐, TV·비디오·비디오카메라의 영상 3개 품목에서 신상품을 개발한다고 하는 와이드 전략을 발표하였다.

TV에서는 다소 뒤떨어져 있는 와이드TV의 쉐어 확대를, 비디오 카메라에서는 와이드 영상에 최적인 슈퍼(S) VHS타입의 판매 강화로도모하고, 이를 위해 각 아이템에서 신상품을 개발하여, 주력 상품은 10월까지 발매할 계획이다.

「요코즈나」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은 와이드TV는 이미 32인치, 28인치가 발매되었고, 9월 1일부터는 24인치의 24WG20(15만 8,000엔)이 발매될 예정으로, 이로써 일단 와이드TV의 3기종이 갖춰진 셈이다.

한편, 슈퍼 VHS 비디오는 「비디오 요코즈나」라는 이름으로 3기종이 발매 되는데, 와이드화면에 노말 VHS를 재생한 경우 수평해상도는 200본 정도가 되는데 비해, 슈퍼 VHS에서는 260~320본 정도로 고화질 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와이드 빅토리 비디오」로써 제안해갈 계획으로, 동 시리즈에는 NV-SB60W(11만엔), SB 70W(13만엔), SB 1000(20만엔)이 있다.

현재 비디오의 가격하락은 격심한데, 그 원인의 하나는 고화질 비디오라 불리우는 슈퍼 VHS 타입의 수요 감소에 있다.